

위로 · 치유 · 희망 있는 가을 문화공연

무주군, 코로나19 극복 · 일상회복 취지 판소리 · 음악 · 미술 · 오케스트라 등 다채롭게 진행

무주군이 희망과 치유, 응원의 전시·공연을 앞두고 있어 벌써부터 군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양한 공연으로 코로나19로 고생한 의료진과 군민들의 상처를 따뜻하게 어루만지고 응원하자는 취지다.

특히 이번 가을 문화공연은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예술의 진정한 힘과 가치를 보여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삶의 가치를 함께 모색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주종합복지관에서는 22일 '심(心)부름꾼과 PAN 소리꾼'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끈다. 창작 퓨전 판소리 장르로 '홍보가'와 '수궁가' 중 한 대목을 소리꾼이 재밌는 해설과 함께 재즈 풍으로 풀어낸 퓨전 국악 실내악을 관람할 수 있다.

이밖에 28일 같은 장소에서 재경 경우회 소

속 공연단이 출연해 어르신들을 위한 가요 및 연주 장르인 윈드 오케스트라 공연을 선보인다. 가을이 본격 익어가는 10월에도 7차례의 가을 문화공연을 앞두고 있어 군민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10월 1일에는 최북미술관 다목적강당에서 난주 그림책 작가의 낭독극(낭이의 이상한 하루)이 이어져 어린이들에게 꿈을 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과 2일 살천 눈꽃 내 문화의집과 안성 복합어울림센터에서는 작가 오은 시인과 임택 작가와의 토크로 진행되는 작가와의 대화의 시간도 마련된다.

이외에도 박규림 휴먼컬러컨설팅 대표가 진행하는 '색채심리로 알아보는 나의 마음'과 우즈베키스탄 국립교향악단의 연주와 발레, 성악 등과도 함께하면서 가을날 위로와 치유, 희망을 불어넣어 줄 계기가 될 전망이다.

가을문화공연은 다음달 19일 무주 군청 앞에서 5인 앙상블과 트럼펫 독주가 이어지는 '무주의 가을을 품고'(버스킹)으로 마무리된다.

특히 (재)무주산골문화재단에서는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공모사업으로 음악으로 듣고 영화로 보는 '무주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2일 최북미술관 야외데크에서 제10회 무주산골영화제 특별기획으로 제작된 다큐 '무주' 상영과 황인홍 군수와 관객과의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

황인홍 군수는 "가을날 평범한 하루의 소중함을 느끼는 이 시점에 일상의 가치와 자유가 가능한 가을 문화공연에 참여함으로써 지친 우리들에게 신선한 청량제가 될 것이다"라며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기자

'전북청년 2023' 전시 초대 미술가 선정

전북도립미술관, 박소연 · 서완호 · 최은우 등 3명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은 공모를 통해 '전북청년 2023' 전시 초대할 사진에 박소연, 회화에 서완호·최은우 등 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북청년미술가 32명이 지원, 1차 심사에서는 3명의 심사위원이 서류 및 작품에 대한 검토를 통해 3~4명씩을 선정했다. 2차 심사에서는 심사위원 각자가 선정한 후보자 가운데 2명의 심사위원이 중복된 후보자 3명을 확정했다.

전북도립미술관은 '전북청년' 공모를 9년째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선정 자체에만 집중하지 않고, 청년미술가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박소연 서완호 최은우

선발된 미술가들에게는 전북도립미술관 본관 기획전 '전북청년 2023'展에 초대된다. 더불어 재료비 지원, 미술평론가 1:1 매칭, 국내·외 기획전시 추천 등이 이뤄진다.

/장은성기자

한국문화콘텐츠 스타트업 '올디', 청년 독서 문화행사 개최

한국 문화 콘텐츠 제작하는 스타트업 올디(olady)가 '2022 청년 책의 해'를 맞아 독서 문화 축제를 주관한다고 밝혔다. 이는 청년들을 위한 독서 축제로 '주경야독'이란 이름을 지었다. 축제는 9월 23일부터 10월 5일까지 13일 간 전주 한옥마을 일대에서 진행된다.

올디는 일상생활에 치여 독서와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퇴근 후 책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청년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축제의 자료를 모아 재구성한 아카이빙 전시도 진행한다. '발자국을 전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아카이빙 전시는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진행된다.

또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전주 독서대점'과 함께하는 행사가 있다.

프로그램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올디 주경야독'을 검색하거나, 주경야독 인스타그램(@book_olady)과 올디(010-8606-2903)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최명희문학관, '단어 · 문장 · 책 · 마음 나눔' 행사 개최

최명희문학관은 10월 1일·8일·9일 '단어와 문장, 책과 마음 나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학주간인 10월 1일은 오전 11시부터 세 시간 동안 열리며, 김근혜·정서연 작가가 참가한다. 한글날을 기념한 행사는 10월 8일과 9일 오후 1시부터 세 시간 동안 진행되며, 김근혜·김현수·박지숙·정서연 작가가 나눔과 체험 행사에 함께한다.

세 차례의 행사 기간 문학관 마당에서는 △소설 '혼불'에 나오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며 아름다운 우리말과 친해지는 '국어사전을 펼쳐라!' △시인·동화작가들과의 일대일 상담으로 00한 사람이 읽으면 좋은 책을

소개받는 '그대에게 이 책을!' △'혼불'에 나오는 문장을 근사한 손글씨 작품으로 담아보는 '혼불문장나눔'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진다.

또 세미나실에서는 '혼불' 속 옛이야기를 영상물로 만나는 시간이 펼쳐진다. 전주에 후백제 도읍을 세운 결실을 하게 된 견훤 대왕의 이야기인 '백제인 마루'와, 가난한 나무꾼이 말하는 개구리를 만나며 벌어지는 교훈을 담은 '나무꾼과 개구리', 설날그믐날 밤 사람들의 신발을 몰래 가져가는 귀신 이야기인 '신발 얻은 아광귀'다. 각 행사에 적극 참여한 시민에게는 전주 문학인들의 신간 도서와 손때 묻은 현책을 나눠 줄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경기전 일대에서 문화누리 문화의길 개최

전북문화관광재단은 23~24일 이틀 간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서문 일대에서 '문화누리 문화의길'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화누리 문화의길'은 지역의 문화체험 및 문화누리카드 가맹점들을 한자리에 모아 플리마켓 거리를 형성해 카드 이용자들이 편하게

즐기며, 다양한 가맹점 물품을 손쉽게 구매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플리마켓에서 문화누리카드 1만 원 이상 구매 후 설문조사에 참여할 경우 소정의 상품이 증정된다. 또 3만 원 이상 사용 후 영수증 지참 시 체험 프로그램 1개 무료 참여도 가능하다.

/장은성기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문체부 장관상 수상

제15회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 문화예술상 시상식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등 기여 인정받아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지난 19일 열린 제15회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 문화예술상 시상식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상은 전국 230여 개의 문화예술기관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문화 향유 환경 개선과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한 문예회관에 수여하는 상이다.

이에 전당은 심사과정에서 문예회관 운영 활성화와 지역문화 발전 기여도, 문화소의 계층을 위한 문화나눔사업 활성화 노력 등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에 따르면 국악과 태권도를 결합한 새로운 장르 태권소리극 '소리극 시리즈'를 전북예술인들의 역량을 모아 자체 기획·제작해 전당과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공연으로 육성했다. 특히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소리극Ⅲ '태권유랑단 녹두'는 '2022 한문연 국·공립예술단체 우수 공연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돼 전국 문예회관 투어공연을 진행 중이라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또한 중앙기관 공모사업을 통해 국고지원금을 확보, 도민들이 다양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노력했으며, 전당이 보유한 시설과 전문인력, 문화지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연령별 예술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 및 시행함으로써 지역민에게 수준 높은 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확대한 점도 인정받았다.



지난 19일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에서 열린 제15회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 문화예술상 시상식에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문예회관상 부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당의 자체 기획·제작 시스템을 활용해 신진 예술인 발굴과 지역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무대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도내 소외계층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 협업해 문화소외계층이 경제적 부담 없이 수준 높은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한 것도 평가에 반영됐다.

지역의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 다양한 공연을 무료로 선보이는 '찾아가는 예술극장' 운영과 다양한 복지 우대 정책을 통해 2021

년 한해에만 약 5만 명에 달하는 문화소의 계층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서현석 대표는 "이번 수상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와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에 노력해 온 전당의 열정을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전북 문화예술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히 임해 전북이 문화복지 1등 지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